땅과 하늘 시스템의 충돌

(미가 3장 1절~12절)

1.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5.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과 하늘 시스템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과 하늘 시스템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 교수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슈를 정치학에 던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분이 저서에서 냉전 시대 이후의 국제질서를 예측하였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옷을 입은 서구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제패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 세계는 목숨을 걸고 반기를 들어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가 대결하던 시대였다면 현대는 오히려 과거와 같이 종교의 이념적 가치가 부활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대국을 이룬 일본, 패권 국가를 향해 질주하는 중국, 우리나라 등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을 통해서 세계정세는 서구와 이슬람과 동아시아의 삼자패권 충돌의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의 충돌은 약화되겠지만 서구문명과 동아시아문명의 충돌은 보다 강하게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세계정세의 흐름은 문명의 충돌이라기보다는 패권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미 동아시아나 이슬람 국가 내에도 서구문명은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또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기에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끊임없는 갈등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해방이후 가장 안 좋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여러 책을 썼지만 이분이 전혀 알 수 없는 충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시스템과 땅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곧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이 충돌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속하신 하늘 시스템이 땅의 시스템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란 곧 여러 가지 요소가 어떤 목표나 목적을 위해서 질서 있게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시스템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다는 믿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땅 시스템이란 땅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심이 된 삶의 구조입니다.
다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시스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로써 기독교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땅 시스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 시스템과 하늘 시스템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충돌을 보면서 내가 어느 시스템에 속해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용하는 참으로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 시스템과 땅 시스템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미 앞서 본 2장 6절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 왕국 사마리아와 남 왕국 예루살렘에 대해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를 비난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선포가 예언이 아니라 단지 욕과 저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히브리어 '나탑'으로써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사사기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

을 내린다는 표현이 바로 본문에 예언으로 번역된 '나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요엘서 3장 18절에서도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라고 하였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아가서 4장 11절에서도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라는 부분과 5장 5절에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라는 부분 등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에 본문에서 나타난 '나탑'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예언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탑'이란 하늘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하늘과 연결된 상태임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예언을 그치라는 백성들의 말에서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면 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동작을 멈추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은 본래 '나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생활패턴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 선민의 본분이었습니다. 선민이라면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누릴 것이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공급처가 하늘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선민의 본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땅에서 긁어모으고 확장시켜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마음이 바로 땅 시스템입니다. 땅에서 긁어모으고 확장시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면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겠다기보다는 믿어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선민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가 선지자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하늘 시스템과, 땅에서 긁어모으고 확장시킴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는 땅 시스템이 충돌하였습니다. 미가는 이 충돌에서 강하게 저항하며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충돌의 현장에서 땅 시스템을 뚫고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땅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자들도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 시스템과 땅 시스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시간의 개념부터 차이가 납니다. 땅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들의 시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땅 위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하늘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코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초 단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철저하게 매이고 종속되어 사는 것이야 말로 선민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지도자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본분을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문 2절에서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2절 하반부와 3절에 나타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선민이 지켜야 할 본분으로써의 정의입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어지는 대로 땅에서 행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땅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잘 분석해서 대처 방안을 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 대처 방안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거나 등등의 방법이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우리의 눈과 귀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는 한가지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물방울처럼 떨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분석하고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한일 관계가 험악합니다. 아베 수상의 일본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강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베 수상이 어떠한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아베 수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지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됩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긁어모으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경계와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잘 살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이러한 땅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붙잡고자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지적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배우자 앞에서조차 정의를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배우자를 관찰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십자가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물방울 떨어지듯이 지침을 받으면 그것이 곧 삶의 정의가 됩니다. 가족에게서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정의를 행할 수 없다면 이 사회에서 정의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정의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규정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고 관찰한 행동지침이 아니라 물방울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서 행동

하는 것만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치가들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전부가 정의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아니라면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의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순간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침을 받아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정의를 행해야 될 상황을 만나기 이전에 정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뿌리란 '나'라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셔 들이는 것이야 말로 정의의 뿌리입니다.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정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하늘의 지침을 따라 이루어지는 정의 또한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하늘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이 뿌리가 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가 되는 정의에 대비되는 불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불의입니다. 돈을 손에 쥐었다고 웃음이 나온다면 부정부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강으로 기뻐하려 할 때에 정의가 무산되고 불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일류기업에 취직하고 또 승진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고자 한다면 이런 불의가 없습니다. 하늘이 애곡할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든 일본의 아베수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라기는 아베 수상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적대시함으로써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공고히 하고 그로써 기쁨을 얻으려는 불의한 마음은 갖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불의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정의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 이후에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미가 본인도 선지자면서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한 비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입에 들어가는 유익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평강할 것이라며 축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성하고 헌신하라며 쓴 소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샘솟는 옹달샘으로도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강 길을 올라가다보면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옹달샘에서 갈증을 달랩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곳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맑고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옹달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늘을 지층으로 표현하자면 '나'라는 인격의 옹달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을 때 듣는 사람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소비되고 소모되어질 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5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옹달샘의 물이 아깝지만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말씀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듯이 말씀이 상품이 되어버리면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하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돈이든 명예든 당회장으로서의 권력이든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 좋아하게 된다면 하늘과 단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늘과 끊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입으로는 하늘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늘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장사를 위한 상품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늘에서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옹달샘의 물은 찾는 사람이 있든 없든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물을 마신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찾는 사람이 없다면 그 물은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땅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조차 대가를 받기 위한 상품이 됩니다. 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곧 마음이 땅에 붙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붙을 수도 있고 사업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이 상태를 인정하고 묵인해주면 이제부터 말씀은 하늘 장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미가를 비롯하여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들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선지자가 할 일은 옹달샘의 물이 버려질 것을 각오하고 땅 시스템 자체를 깨는 설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의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불의이며 부정부패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듣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민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불편하게 여기며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해 자신들이 만들어놓

은 땅 시스템에 구멍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듣지 않을지라도 땅 시스템을 깨고 하늘 시스템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땅에 붙어서 기쁨을 찾으려는 불의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사는 하늘 시스템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늘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꼭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에게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나 자신의 인격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어디를 가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무관하게 하늘이 열려서 물방울 떨어지듯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 행동하는 정의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